



MBC 상암동시대 개막 - 8월4일 첫 전파 발사

MBC가 8월4일(월) 상암동 신사옥에서 첫 전파를 발사하고 상암동시대를 선언한다.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1만여평 대지위에 2008년 착공식을 가진 뒤 6년만에 지상 14층짜리 미디어센터와 경영센터를 비롯해 4개 건물의 모든 공정을 끝냈다. 상암동 신사옥은 5월 초에 경인지사가 조기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6월에 임원실, 경영지원국, 홍보국 등이 입주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7월 중에 모든 부서가 여의도시대를 마감하고 상암동으로 옮기게 된다. 매일 저녁 8:50에 방송되는 일일연속극 「엄마의 정원」에서 가끔씩 보이는 (가운데 공간이 트이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이는) 건물이 상암동 신사옥이다. 사우회는 MBC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회원들이 상암동 신사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로회원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견학

올해 상반기 원로회원 산업시찰은 6월 12일(목)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실시됐다. 1935년생부터 1941년생까지 32명의 원로회원들은 MBC에서 제공한 대형 버스를 타고 아침 8:00에 정동 사우회를 출발, 2시간여를 달려 홍천에 도착했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은 홍천강 옆 16만평 넓은 부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공장 내 모든 시설은 최첨단 시스템으로 자동화 되어 연간 60만 킬로리터(kl)의 맥주가 생산되고 있었는데 2시간여에 걸쳐 홍천공장 견학을 마친 회원들은 당일 생산된 생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산업시찰은 이승렬(보도, 하이트진로 부사장) 회원의 도움으로 실시됐으며 사무처는 행사에 참가한 원로회원들에게 300g짜리 잣 한통씩을 선물로 드렸다.



바둑대회 : 김현철(편제), 이범수(업무) 회원 우승

봄철 회장배 친선 바둑대회가 6월3일(화)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려 김현철(편제)-이범수(업무)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김현철 회원은 A조(아마5단~5급) 결승에서 접전 끝에 이진섭(편제) 회원을 물리치고 1996년 이후 18년 만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B조(6급이하) 결승에서는 이범수(업무) 회원이 우승을 차지해 지난해 가을철 대회 준우승에 이어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MBC C&I 전영배 사장은 이번 바둑대회에 남성용 넥타이 10개와 여성용 스카프 5개를 기증했다.



방송 3사 사우회 바둑대회 개최 합의

MBC와 KBS, SBS사우회는 6월18일(수) 여의도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모임을 갖고 올해 안에 3사 사우회 친선 바둑대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바둑대회는 KBS사우회가 주관하여 날짜 및 장소, 출전 선수 숫자, 경기 방법 등을 정하게 된다. 3사 사우회는 또 등산대회도 함께 실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MBC사우회가 구체적인 안을 세우도록 했다. 이날 3사 사우회 모임에는 김수량(MBC), 정근춘(KBS), 김수웅(SBS) 회장과 사무처 임직원 등 15명이 참석해 사우회 발전방향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있는 의견을 나누는 한편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낙시대회 : 강정수(관리) 회원 1등

시조회를 겸한 봄철 낙시대회가 5월22일(목)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수로에서 열려 강정수(관리) 회원이 22.5cm짜리 봉어로 1등을 차지했다. 2등은 21.8cm 봉어를 잡은 송재선(업무) 회원, 3등은 20.6cm 봉어를 잡은 권오용(편제) 회원이 차지했다. 날씨가 덥고 물이 흘러 손맛을 보지 못한 회원들이 많았으나 3등을 차지한 권오용 회원은 제법 씨알이 굵은 봉어를 9마리나 잡아 낙시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행운상은 14.5cm짜리 피라미를 잡은 강창우(기술) 회원이 차지했다. 낙시동호회는 또한 6월26일(목)-6월27일(금) 이틀에 걸쳐 아산 봉재저수지에서 밤낙시 행사를 가졌다.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MBC C&I

회 원 동 정

고대석(보도)
박신서(편제)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돼 6월17일 임기를 시작했다. 방통심의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방송 프로그램과 통신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김성수(보도)

5월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보도) 원내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취임했다.



오태돈(보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 교수를 하면서 국제협력처장과 평생교육원 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다.



서정훈(보도)

6월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 아크로바틱록앤롤연맹 창립식에서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딸 카트리나(세계 연맹 부회장)가 하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세영(편제)

3월 18일 (주)imbc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최문순(보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지사에 재선됐다. 최지사는 당선 직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강원도민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철(편제)

지난 5월, 한국아카데미소년소녀합창단과 한국시니어여성합창단을 이끌고 일본에서 공연(사진)을 가졌다. 이들 합창단은 5월11일에는 나가노시 선광사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義人 이수현씨를 추모하는 추모법회 및 우정의 콘서트’에도 참석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최창봉(前사장)

6월12일 구순(九旬)생신을 맞았다. 사우회는 6월19일(목)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구순(九旬)기념잔치 ‘한국방송과 최창봉’(주관: 한국방송인회)에 신대근(보도) 부회장을 통해 건강식품세트를 전달하고 최前사장의 생신을 축하했다.



최창봉(前사장) 공대식(보도) 박기병(보도)

6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와 국방부가 주관한 6.25참전언론인 명패 증정식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위 세 회원을 비롯한 6.25 참전언론인 77명의 이름이 새겨진 ‘6.25참전언론인 명패’는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 영구 현액됐다.



북유럽에서 선진문화를 배우다

유 희 근(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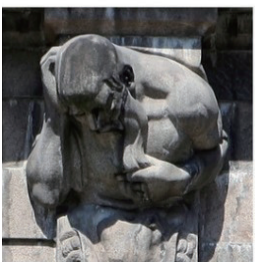


1. 월급 없는 자전거 국회의원 “동화의 나라”는 어딜까? 인어아가씨 동상으로 유명한 덴마크다. 덴마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국회의사당이다. 인구 500만, 면적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의 국회의

사당이 왜 인기 있는가? 여기 국회의원들은 월급이 없다. 승용차도 없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한다. 국회의사당엔 자동차 주차장이 없다. 대신, 자전거 거처대에 자전거만 뽐뽐하다.(사진) 비서도 없다. 개인 사무실도 없다. 넓은 사무실을 여러 국회의원들이 함께 사용한다. 돈 가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가?

2. 귀, 눈, 가슴, 머리

국회의사당은 수백 년 된 낡은 건물이다. 국회의원들은 좁고 작은 문으로 고개를 숙이며 통과한다. 재미있는 것은 문 위에 있는 네 개의 석상(石像)이다.(사진) 사람의 얼굴을 조각한 석상 중



에서 첫 번째는 귀에 손을 대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눈을 부릅뜨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의 생활을 잘 살펴보라는 뜻. 세 번째는 가슴에 손을 대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라는 뜻. 네 번째는 머리를 싸매고 있다.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라는 뜻이라고 한다.

3. 청렴도 세계1위

공무원의 청렴도는 세계 1위다. 공무원 청렴도 세계1위를 놓고 매년 뉴질랜드와 경쟁한다. 재작년에 공동 1위였다가 작년에 단독 1위를 했다. 덴마크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말이다. 덴마크 공무원을 뵈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는 얘기다. 덴마크 공무원들은 법대로 할 뿐이다. 돈을 먹고 봐주는 일이 없다. 돈 봉투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반문한다. 법대로 시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들고 가서 부탁해봤자 소용없다고 한다. 받은 게 없는데 뒷사람에게 상납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법을 어기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겠는가? 세월호와 비교해 보자.

4. 철저한 재난 대피 안내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를 운항하는 대형 크루즈가 있다. 3,000명씩 승선하는 대형크루즈다.(사진) 자가용과 관광버스와 일반 화물차량도 싣고 항해한다. 승객들은 전자 개찰기로 정확한 신원 파악이 끝나야만 배에 오른다. 제복 입은 승무원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여

권과 승선권을 확인한 뒤에야 배를 탈 수 있다. 17시간 항해하면서 무려 다섯 번 대피 안내 방송을 했다. 11층이나 되는 배에는 초대형 레스토랑, 수영장, 사우나실, 휴게실, 대형 면세점이 있



다. 대피 안내 방송은 이런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일광욕하는 선상갑판과 수천 개의 방마다 스피커를 통해 정확하게 들린다. 직원은 모두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 철두철미 안전제일이다.

5. 청정자연보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스칸디나비아 3국은 숲과 호수와 빙하와 계곡이 한데 어우러진 청정(淸淨)지역이다. 3국은 국토의 70퍼센트가 숲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 개발보다는 청정자연보호가 첫째다. 개인소득 8만 달러에서 11만 달러나 되는 선진국들이다. 덴마크처럼 청렴한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는 일반 국민도 준법정신이 투철하다. 그래서 공원이나 관광지를 아무리 둘러봐도 쓰레기가 안 보인다. 마시고 버린 맥주 캔도 없고, 빈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도 없다. 흐르는 물은 그대로 마셔도 좋을 만큼 깨끗하다. 어떠한 나라가 문화선진국일까? 어떠한 나라가 정치선진국일까?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봄이 오면 반드시 유럽을 여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은 보고 배울 것이 한없이 저장된 보물 창고와 같다.

경.조사

■ 팔순 ■

권해옥(감사)8/15 황규봉(대구)9/17 고흥복(기술)9/18 김현철(미주)9/25

■ 고희 ■

진성수(기술)8/6 윤홍섭(보도)8/10 김우중(관리)8/11 조병락(기술)9/3
육수길(관리)9/7 정영희(ANN)9/23

■ 회갑 ■

정갑표(기술)8/2 김세영(편제)8/3 유철수(관리)8/6 최조남(관리)8/15
신민철(관리)8/18 김승월(편제)8/23 박진석(기술)8/23 손원록(관리)8/30
김종국(관리)9/3 강성호(편제)9/9 김윤영(편제)9/18 이문노(보도)9/19

■ 결혼 ■

정태모(관리)차녀6/8 김 영(편제)장남6/14 김광배(관리)장남6/21
박정근(편제)장녀6/21 박진석(기술)장녀6/28 천복용(기술)장녀6/28
천영숙(편제) 딸 7/12 진현숙(편제)장녀8/9

■ 부음 ■

이현규(보도)장모별세5/22 주광순(관리)모친별세5/24 노웅래(보도)부친별세5/24
곽성문(보도)장인별세5/26 황용기(편제)장인별세5/27 정재호(관리)모친별세6/9
정홍보(보도)장모별세6/10 윤주혁(관리)장인별세6/13 윤종옥(관리)장모별세6/14
김익원(편제)부친별세6/15 이성수(관리)모친별세6/15 권영만(관리)장모별세6/24
정경수(ANN)장모별세7/4 황영옥(보도)부인별세7/7

이원일(미주) : 전 보도국 카메라기자, 5월27일(화) 미국 LA에서 간암으로 별세, 향년 83세. 1970년대 후반에 LA로 이민했으며 한동안 포토샵을 경영하기도 했다.

이웅희(특별) : 前 사장. 6월3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84세.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1982년부터 86년까지 13-14대 MBC 사장을 지냈다.

이병현(업무) : 6월23일(월) 폐혈증으로 별세, 향년 81세. 1968년 업무국 영업부에 입사해 13년간 광고맨으로 근무했다. 퇴직후 안동MBC에서 근무.

회원/ 회비관리

■ 평생회비 ■

장한진(관리)5/2 박래양(보도)5/7 백종문(편제)5/13 권오승(보도)5/13
최기철(관리)5/15 김창옥(ANN)6/2 김호석(관리)6/9 오태돈(보도)6/10
정운현(편제)6/19 박신서(편제)6/19

■ 연회비 ■

5월 : 강효복(14) 국창섭(14-15) 김경일(14) 김선희(14) 김진호(12-14)
김채영(14) 남궁미(14) 노영인(14)故민창기(13) 박민정(14) 박성배(14)
박종순(14) 박종진(14-15) 박찬순(14) 반주원(14) 배성룡(14) 백성원(14)
서은선(14) 송재선(14,80세납부끝) 안종순(14) 안주희(14) 윤상준(14)
이명순(14) 이무영(11-14) 이오기(14) 이인숙(14) 이철원(13-14,80세납부끝)
이한수(13-14) 임국희(14) 장한진(06-13) 정동영(대구,14) 정영희(14)
정재호(11-15) 정 진(16-17,80세납부끝) 조석영(13-14) 진성창(14)
최영식(13-15) 최은형(14) 최화숙(14) 홍학표(14) 황경자(14)
황귀철(18-23,80세납부끝)6월 : 김병문(14) 김용관(14) 박경식(14-15,80세납부끝) 백재인(12-13)
오태돈(07-13) 故이병현(05-13) 이연경(12-14) 이원하(20-24,80세납부끝)
이종모(10-11) 이준호(12-14) 이진섭(09-13) 임동훈(14) 전병옥(14)
전정익(14) 정태모(09-14) 천영숙(13-15)

■ 신규입회 ■

金昌玉(ANN) 010-9105-2262 02-409-4088
송파구 오금로35길 17, 31-103 (오금동, 현대A)
朴新緒(편제) 010-9150-1354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29번길 86, MBC빌리지 9호 (성석동)
鄭雲鉉(편제) 010-8736-6420 02-2652-7175
양천구 목동서로 38, 113-408 (목동, 신시가지1단지A)
崔基喆(관리) 010-4718-8580 031-987-7585
김포시 유현로 19, 103-403 (풍무동, 신동아A)

전화/주소 변경

편제 : 김창제 010-5275-7997

염영수 031-772-9936, 여주시 산북면 용담4길 21-22

장수남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70번길 105-13, A-302 (내유동, GK빌)

보도 : 곽성문 010-7256-0200

김동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164번길 13, 202-601 (성북동, 힐스테이트)

김정명 관악구 봉천로 576 동아타운A 1305호

김종세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86, 102-201 (성북동, LG빌리지1차)

서영호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5, 1502-1006 (탄현동, 탄현마을)

오태돈 과천시 양지마을4로 33, 301호 (과천동, 빌라다르)

이준호 강서구 월정로 160, 2-405 (화곡동, 화곡대림A)

ANN : 이인숙 강남구 압구정로 151, 113-1106 (압구정동, 신현대A)

최은형 강남구 언주로30길 57, 삼성타워팰리스 E-710

기술 : 박두선 김포시 김포한강1로 227, 510-1503 (운양동, 래미안한강2차)

오정수 010-3896-5010 / 윤상도 010-8734-7070

이상원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로 46, 406-703 (행신동, 서정마을)

장 용 010-8602-3771

정태웅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20, 551-1102 (죽전동)

정효식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길 111, 105-409 (목동, 금호베스트빌)

진성수 은평구 갈현로4길 40-4, 402호 (신사동, 한진빌라)

업무 : 권오형 서초구 청계산로7길 43, 501-504 (신원동, 서초포레스타)

유대희 010-5768-5254 / 이종모 010-5381-9356

이범수 강서구 화곡로13길 126-4, 101호 (화곡동)

관리 : 경정수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49번길 27, 201호 (관양동)

김광배 010-2874-9986 / 서복희 010-8831-6021

이보근 인천시 부평구 부평로38번길 24, 402호 (부평동, 동원주택)

이상훈 010-6277-2014

이종선 은평구 불광로16길 13-13, 102호 (불광동)

정태모 010-5465-3208

전주 : 강준오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507, 306-704 (야탑동, 매화마을)

신무성 010-2406-8180

TV채널에
새로움이 플러스 된다

이 사람

황 선 길(편제)



미국 디즈니사가 제작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3월1일, 개봉 45일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뿐 아니라 온갖 상품에 캐릭터를 붙이고 OST는 음원차트를 정복하고 아이돌 가수들은 앞 다투어 주제가 'Let it go'를 불러 제낀다. 가히 '겨울왕국' 열풍이다. 이런 현상을 보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황선길 회원이다. MBC에 재직하는 동안 '머털도사 시리즈' '독고택' '도단이' '심청' 등 장편 11편, 시리즈 26편을 제작, 방송하며 국산 애니메이션 보급에 열정을 쏟았던 그로서는 미국 애니메이션 단 한편이 우리의 시장을 단숨에 휩쓸어 버린 사실이 부럽기도 하면서 기가 막힌다.

MBC를 퇴사한 뒤에도 현업시절과 연관된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드문 현실을 감안하면 황선길 회원은 퇴사 후에 더욱 빛을 발한 특별한 케이스다. 1964년, 부산MBC를 거쳐 서울MBC에서 보낸 35년 세월의 대부분을 영화부에서 <주말의 명화> <TV시리즈> 등 1,400여편의 외화를 녹음, 연출하는 일 외에도 번역작가, 연출자, 연기자 각 각 만들어 사용하던 더빙 녹음기호를 정리, 통일하고 MBC아카데미에서 국내 최초로 영상번역작가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작가들을 양성했다. 당시 TV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은 전부 미국, 일본 작품이었으며 국산 애니메이션은 1987년, '88올림픽'을 의식해서 급하게 만든 '달려라 호돌이' '떠돌이 까치'가 처음이었다. 이후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앞에서 얘기한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비로소 국내 TV에 선보이게 된 것이다. 애니메이션에 관한 전문 책자조차 변변한 것이 없던 시절, 그는 틈틈이 외국서적을 구해서 읽고 신문기사를 스캔하는 외에 미술, 영화학, 심리학 등 연관되는 분야를 혼자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실제와 이론을 겸비한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다. 퇴사한 후 그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의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애니메이션 강의를 했고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우대겸임교수로 선임되어 8년간의 캠퍼스 생활을 보낸다. 애당초 국문학 전공의 소설가 지망생의 길은 이렇게 변하고 말았다.

국내 첫 애니메이션 케이블 채널인 투니버스의 개국 작업에 참여하고 역시 국내 첫 애니메이션 전문대학원인 한국애니메이션 아카데미의 설립위원과 주임교수로 일하던 그는 2004년, 경기도 하남시에 자리를 잡은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초대교장으로 취임한다. 특성화 고교로 세계에서 유일한 학교로 꼽히는 국내 첫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탄생했다고 해서 당시 크게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다. 교장 취임식에서 그는 "문화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중추적 역할을 할 인재들을 키워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고 그의 약속대로 자금도 잘 훈련받은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2005년 국내 애니메이션 교수들의 학술단체인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를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그는 초대 회장을 맡아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작품전을 기획, 추진했다. 행정적인 일 외에도 2009년 제13회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할 만큼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 첫 타이포그래픽 애니메이션 학술전집을 비롯하여 13권의 저서를 집필한 그의 업적 등을 인정받아 2012년 서울시 문화상(문화산업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진) 70을

훌쩍 넘긴 그의 요즘 과제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국립애니메이션 종합스튜디오의 건설과 함께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지원책을 꾸준히 정부에 건의하는 일이다. "몇 년전 중국에 가서 애니메이션 실상을 둘러봤더니 전부 외국 작품을 모방하고 있어서 혹독하게 비난을 했었는데 최근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통적인 수묵화 기법을 살린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개발했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큰일 났구나 생각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양성을 위한 대학의 학과조차 없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없는 참담한 현실이 그를 맥빠지게 한다. '겨울왕국'을 능가하는 국산 작품을 내놓고 싶은 그의 희망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글/ 편집장

ESSAY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또다시 딸네 가족이 살고 있는 북경엘 왔다. 친지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일은 집을 나와 다시 새장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바보짓이다. 안내나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들은 나의 가장 큰 쾌락을 원천 차단해 버린다. 낯선 고장의 신선한 기운이 내 살갗으로 스르륵 스며드는 것을 말이다. 하기가 이번에는 딸이 소주(蘇州)에서 열리는 학회에 가게 되어 손자를 봐주러 왔으니 다른 욕심일랑 아예 접하고 다짐했다. 2년 전에는 혼자서 밤늦도록 돌아다녔다가 사위에게 크게 통을 맞은 터였다. 출장에서 돌아온 딸은 나를 왕징(望京)에 있는 '798예술중심'에 풀어놓고 갔다. 풀어놓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나를 물가의 어린아이처럼 보니까,

북경은 2년 사이 크게 변해 있었다. 딸이 없는 동안 둘러본 왕징이 특히 그랬다. 거리는 상당히 깨끗해졌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표정이 밝고 친절해 보였다. 살림살이가 나아진 티는 이런 식으로 나는가 싶기도 했다. 네모상자만 서 있던 아파트촌에 우주선처럼 생긴 타원형 소호가 들어서서 스카이라인에 변화가 생겼다. 게다가 내가 온 뒤부터 하루걸러 소나기가 쏟아져 아침이면 타원형 지붕 위로 새파란 하늘이 드리웠다. 밤에는 별들

북경(北京)의 하늘

박 찬 순(편제)

의 기척도 들렸다. 자욱한 황사는 남의 나라 일이라는 듯이.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이구동성으로 문자가 왔다. '북경에도 그런 날이.'

혼자가 된 나는 '798예술중심'에서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기념품도 사고 갤러리에도 들렀다. 지난번에도 그랬듯 오관중의 그림에 폭 빠져 들었다. 춤추는 듯한 몇 개의 선으로 그려진 지붕과 무너진 돌담 사이에 돋은 한 포기 풀로도 이른 봄의 정취를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불안이야말로 살아있음의 한 징표가 아닌가. 변화무쌍한 하늘을 감상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지금 있는 곳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딸의 명령이었다. 중국어를 모른다고 이런 구박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잡혀왔다.

하지만 나는 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딸과 사위의 눈에 비친 모습 말고 내 눈으로 직접 중국의 민낯을 보고 사람도 내 실력으로 사귀고 싶은 것이다. 몇 년 전에 나는 저들의 독수리눈을 피해 컴퓨터 전공의 대학원생과 사귀어 지금껏 연락하고 지낸다. 혼자 캠퍼스를 돌아다녔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주위에 자랑을 했더니 만나기만 하면 '북경의 남친'은 잘 있냐며 짓궂게 안부를 묻는 친구들도 있다. 물론 잘 있다. 7년 사이 그는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해서 시월이면 아기 아빠가 된다. 때를 노

리며 손자들과 집에 갇혀 있자니 자연히 한국 TV만 보게 되었다. 손자들은 우리 방송을 보면서 한글을 깨치고 있는데 한족 도우미는 우리말을 한마디도 못했다. 예능프로를 보던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부끄부끄'가 뭐야?" "썰쭉한 정한 씨"는?

재미로 자막을 넣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시청자가 느낄 것까지 미리 정해 줄 줄이야. 매스컴이 교묘하게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려 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였다. 그런 것을 신중 파시즘이라고 한다면, 손자는 다섯 살 때 연근(蓮根)이 제 입에 큰 듯해서 잘라주려 하자 다급하게 소리쳤다. '안돼요. 그 예쁜 걸 왜 잘라요?' 그러면서 통째로 그걸 입에 집어넣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은 다섯 살 박이에게도 있었다. 이런 아이에게 느낌까지도 정해주는 자막이라니. 그것은 틀린 맞춤법이나 비속어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더욱 위험한지도 모른다. 손자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할머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뭐야?"

"너나 잘 하세요"는?"

스스로는 느낄 줄을 모르고 자막이 시키는 대로 똑같이 느끼면서 자라는 아이들. 그들이 자라 똑같은 사고를 갖고서 방향도 모르는 채 한곳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세상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여 눈앞이 아찔해왔다. 내가 북경의 독수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손자들과 함께 외쳐야만 할 것 같았다.

"혼자서도 잘해요!"



봉사하는 즐거움



四顧五起로 MBC에 입사하여 큰 功過 없이 정년퇴직을 하고 되돌아보니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이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무언가 가시적인 보답을 해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2010년 5월 17일부터 성경을 녹음하기 시작해 다음 해 4월 말에 녹음을 마치고 mp3 파일 CD 6넉 장에 담아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일일이 배송했다.(극동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 전파를 탔고, 500세트는 자비로 600세트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녹음의 주안점은 표준발음규정에 따른 구어체 녹음이었다. 장단음이나 띄어 읽기, 경음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녹음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문어체 문장은 구어체 문장에 비해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어 번역본 가운데 한 책을 기본 텍스트로 선정하되 일일이 문장을 다듬어 가며 녹음했다. 쉽게 말해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녹음했고, 특별히 내용도 모르면서 글만 녹음한 것이 아니라 아는 내용을 말로 녹음했다.

그런데 녹음이 끝나갈 즈음 녹음실 백진음반기획사장(목사)이 이런 권유를 했다. “장로님 이렇게 일 년이나 걸려 일일이 문장을 고쳐 가면서 녹음을 하셨는데, 차제에 성경 전체를 쉽고 아름다운 우리 말로 한번 고쳐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구, 그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흘러버리고 말았는데 며칠 후 같은 말로 다시 권유했다. 역시 “그 엄청난 작업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 말이 떠올랐고, 떠오름과 동시에 엄지와 중지로 손가락을 튕기며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그게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야.”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날(09.5.17)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5년째 계속하고 있다.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첫째,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 이유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의 능력을 잘 아시는 하느님이 과연 읽어도 이해할 수 없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둘째, 성경에서 하느님이 글로 써 주신 것은 십계명 뿐이고 나머지는 다 말로 해 주셨는데, 특별히 개역개정판은 말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글이다.(심지어 느헤미야서에는 한 문장의 단어 수가 290단어가 넘는 것도 있고, 성경 전체에서 50단어가 넘는 것은 부지기수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말씀(Spoken language)이 아니라 이렇게 숨넘어가게 긴 문장(Written language)으로 쓴 것은 히브리어 사본에 어떻게 기록 되어 있는지를 말하기 전에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이라는 것이 역시 내 확고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글말’을,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말’로

고쳐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버전 한글 성경 8권과 영어성경 4권, 스트롱코드성경(성경에 쓰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사전을 부록으로 만든 성경)과 성경 지도, 성경 사전, 주석 등을 펼쳐 놓고(책상도 큰 것으로 바꾸었음) 법률 초조심의(逐條審議) 하듯이 한 절 한 절 대비해 가며, “이 내용을 하느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라는 관점에서 다듬고 있다. 아직도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고, 다듬어 보라는 마음만 주셨지 책 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여건이 마련되어 책을 발간하게 되면 책 제목은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말씀’으로 하려고 한다.

다른 보답으로는, 지난 09년부터 토요일마다 탈북(脫北) 크리스천 대학생들에게 영어성경을 지도하며 독지가들이 보내주는 기부금으로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돕는 일을 하고 있고, 07년부터 영어성경 544절을 뽑아 암송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암송해 작년부터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에서 영어성경 암송반을 인도하고 있다. 영어성경 암송은 살아 있고(alive) 운동력 있는(active) 하느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고 영어 공부도 하며 무엇보다 치매 예방의 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인생 황혼 길에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혹시 종교를 떠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우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 창 섭(ANN)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부처를 본다

장 영 호(관리)



“프르르딱 프르르딱 프르르딱..”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마 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새벽 3시, 사찰에서 어둠을 가르는 목탁소리와 스님의 독경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다. 모든 중생들을 잠에서 깨

우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의식이다.(요즘 도시 주변 일부 사찰에서는 4시에 예불을 시작하는 곳도 있다.) 口業(입으로 지은 죄업)을 막히는 진언(眞言)으로 육도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식이다. 나는 20년 전부터 봉은사 새벽예불에서 108참회의 절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죄무자성중심기(罪無自性從心起)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 것.

심약멸시죄역망(心若滅時罪亦亡) 마음이 만약 없어진다면 죄업 또한 없어지네.

죄망심멸양구공(罪亡心滅兩俱空) 죄도 없어지고 마음 또한 공하여야

시즉명위진참회(是則名爲眞懺悔) 이것을 이름하여 진정한 참회라 한다네.”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안 좋게 한다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손해를 보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기심 때문에 다투지는 않았는지 등등. 하루생활을 돌아보며 참회의 절을 하다보면 모든

다툼과 갈등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과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자만심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갈등과 다툼이 나로 인해 생기니까 내가 조금만 참고 양보하면 모든 갈등은 곧 없어진다.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 한발 물러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편해진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다투고 나면 기분도 상하고 자책감으로 오랜 시간을 괴로워하게 된다. 이렇게 마음 한번 바꿔 생각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런 근본원인을 부처님께서서는 탐(貪)-욕심내고, 진(瞋)-성내고, 치(癡)-어리석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항상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욕심내고 다투며 화를 내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참회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몸과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하며 살아야 한다. 금강경에 ‘상을 없애면 부처를 본다’는 내용이 수없이 나오는데 금강경을 압축한 사구계(四句偈)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풀이를 하자면,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볼 것이다.”

금강경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자리에 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눈앞에 분필이 있으면 우리 머리에 벌써 분필의 상이 생기는 데 즉, 분필은 희고 길다 이렇게 상이 생기고 또 누가 “이 음식을 먹으면 간이나 위장에 좋다”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위장이 안 좋은데 이걸 먹으면 좋겠구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생각이나 느낌을 식상이라고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바로 이 식상을 초월하라고 강조한다. 한번 각인된 식상은 다 ‘연생연멸이고 환생환멸이고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라.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아야 여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20년 동안 새벽에 봉은사에 가서 참회기도를 하며 느낀 점을 써봤는데, 두서없이 장광설을 늘어놓아 주제넘는 짓을 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우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족과 인근 친척과 권속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 사 석가모니불”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김명철(기술)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17일간) 열리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POCOG)는 국회, 정부부처, 개최도시, 대한체육회 등 정·관계 인사와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2011년 10월 19일 출범했습니다. 인원은 119명(위원장 1, 위원 118)이며, 기구로는 위원총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기간에는 IOC 80여 회원국의 선수, 임원 6천여명과 IOC 패밀리, 각국 NOC, 국제스포츠 관계자, 보도진 2만여명 등 총 2만 6천여명이 평창 등에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최장소는 평창, 강릉, 정선이며 경기종목은 7경기 15종목에 약 100개의 세부종목입니다.

동계올림픽의 雪上경기는 평창(알펜시아, 용평, 보광), 정선(중봉)지역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노르딕복합,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알파인스키(대회전/회전), 프리스타일스키, 스노보드, 알파인스키(활강/슈퍼대회전) 등이 열리며, 氷上경기는 강릉에서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남,녀), 컬링 등이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이어서 제12회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Paralympic)가 열립니다. 개

최기간은 2018. 3. 9 ~ 3. 18(10일간)이며, 참가국 및 인원은 50개국 1,500여명(선수 690여명, 임원 810여명) 예정이며, 경기종목은 5개 종목(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이지하키)입니다. 이러한 경기들을 치르기 위해 총 13개의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이미 알펜시아지역에 갖추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슬라이딩센터 (봅슬레이, 루지 등)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경기장들도 금년 중에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대부분 착공할 계획이며, 2016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Test event(올림픽 이전 시험 경기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올림픽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IBC(국제방송센터)는 지금 기술검토 중인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하여 2017년 5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센터에는 전 세계의 약 80개 방송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역시 알펜시아 지역에 건설됩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메인스타디움 역시 설계 중인데 2017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NBC는 이미 지난 4월에 답사팀이 다녀갔으며, 내년 2월에는 평창에서 세계 방송사 회의인 WBB(World Broadcaster Briefing)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전 세계 방송사에게 평창대회의 준비사항을 알리고 또한 각 방송사의 요구사항들을 접수받

아 그들이 방송을 잘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에는 40여개의 FA(분야)가 있으며 경기, 시설, 방송, Press, 교통, 숙박, 에너지(전력), 마케팅, 홍보, 국제업무 등 분야에서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 및 각 방송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모든 올림픽 경기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IOC의 회사인 OBS가 제작하여 IOC와 올림픽 방영권을 체결한 나라의 방송사(RHB: Right Holding Broadcasters)에게 제공하는데 이들 방송사는 거의 IBC(국제방송센터) 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즉 방송프로그램은 경기장에서 IBC를 거쳐서 각 방송사로 송출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창올림픽은 4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직위원회 스태프들은 이미 2014년 2월 소치동계올림픽에 참가하여 현장에서 보고 배우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MBC 재직 중 올림픽 참가 경력과 TV중계부, 관리자 경험을 바탕으로 영광스럽게도 동계올림픽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방송기술은 물론 영어도 잘 해야 하므로 뒤늦게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지난 경험을 되살려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보람있게 생각하며 사우 여러분들께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現)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방송기술팀장

TV보다 더 큰 세상, iMBC

iMBC는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MBC와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며 뉴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폭넓은 콘텐츠 수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게임, 교육, 공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iMBC.

새로운 생각과 과감한 도전으로 세상을 향한 넓은 창이 되겠습니다.

